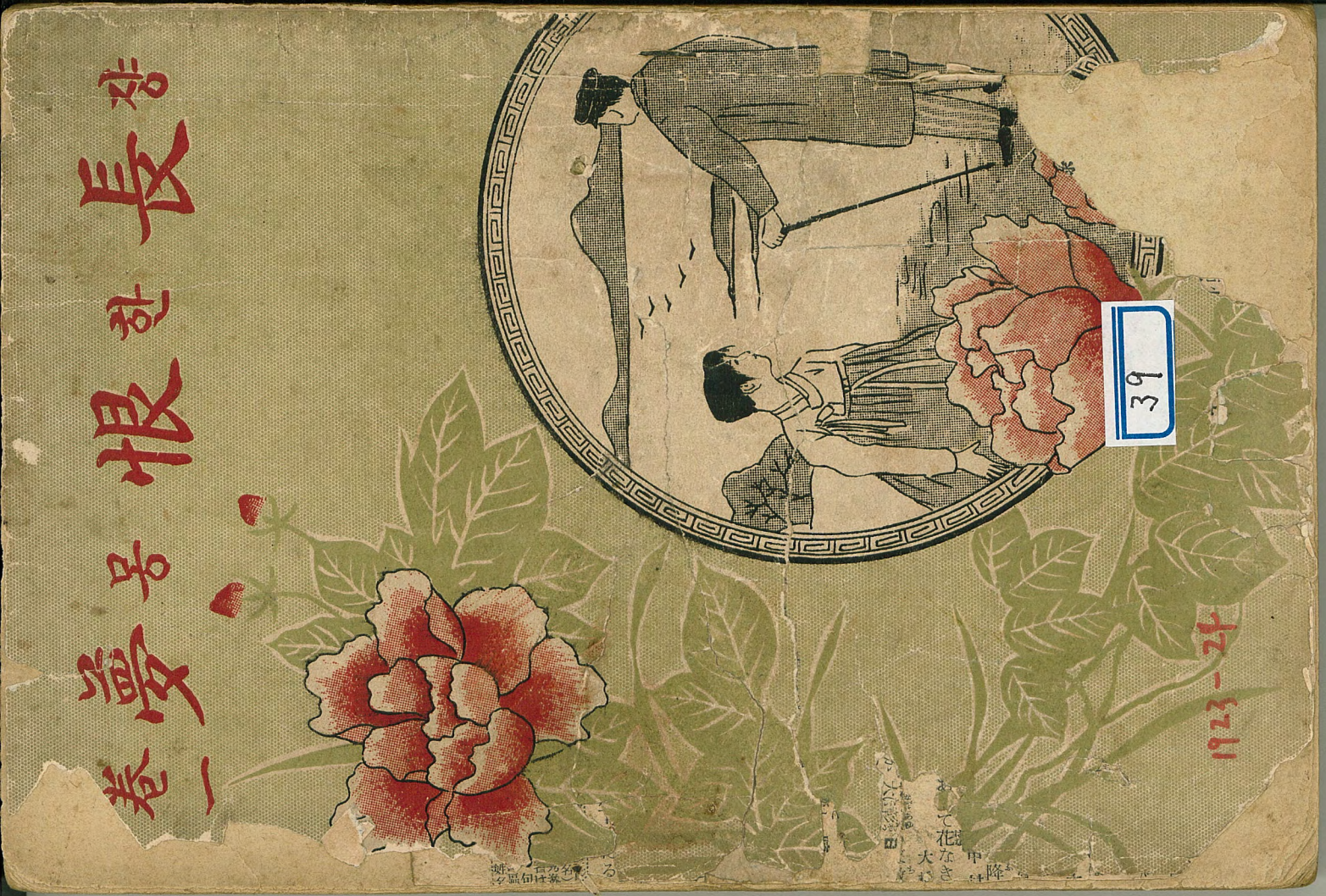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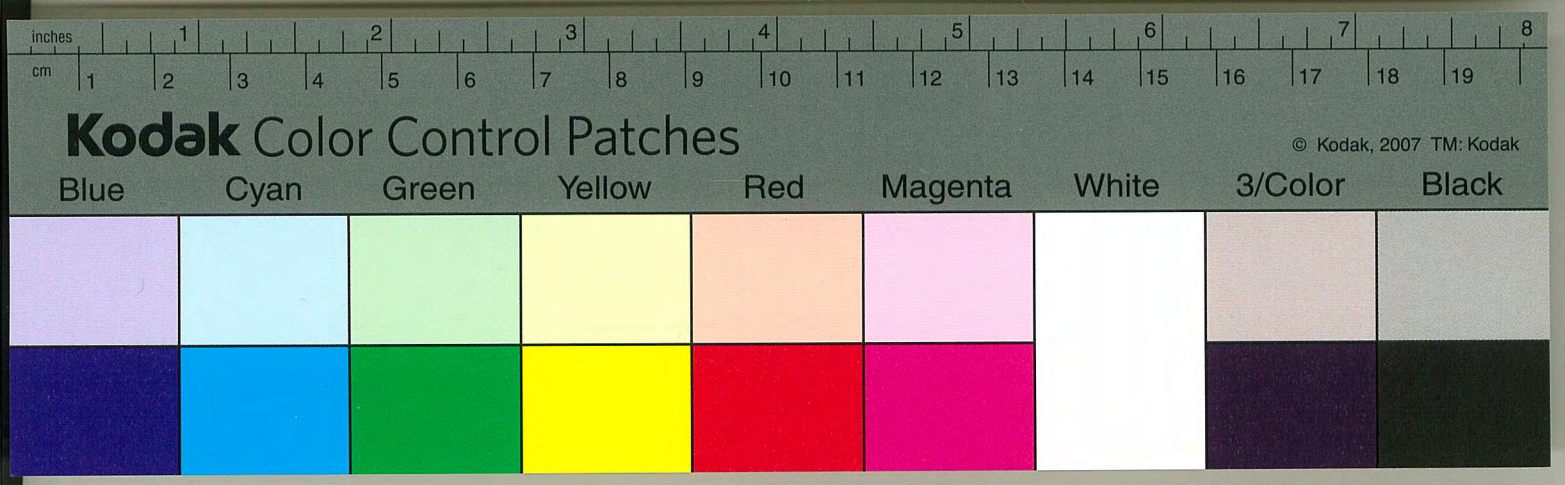

39
1923-24


inches
cm
Kodak Color Control Patches
© Kodak, 2007 TM: Kodak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장한몽 상편 목록

長恨夢 上編目錄

제일장 (擲栖會) 척사회
제이장 (歸途) 귀도
제삼장 (孤依) 고의
제사장 (深夜述懷) 심야술회
제오장 번민
제륙장 회구
제칠장 (平壤寓居) 평양우거
제팔장 (大同江岸) 대동강안
제구장 (南大門停車場) 남대문정거장
제십장 (料理店) 요리점
제십일장 (西江別莊) 셔강별장
제십이장 (邂逅) 히후

録号 3198
類号
書号
分番
圖番

장한몽상 長恨夢 上

제일장 攀桐會 (윤노름판)

히는 임의셔으로 넘어가고 가가에문은 모다쳡々이 닷쳣는듸 동으로부터 셔으로향ᄒᆞ야 길게빗기여잇는 듸로는고흔비로 쓰러바린것갓치 띄글ᄒᆞ나히날니지아니ᄒᆞ며 고요ᄒᆞ고 젹々ᄒᆞ여 ᄂᆡ왕이쓴어지고 스름의 그림ᄌᆞ흔나도 보이지아니ᄒᆞ는듸 다만 간간히 인력거지ᄂᆡ여 가는소ᄅᆡ만 혹은 급ᄒᆞ며 혹은 쳔々ᄒᆞ야 명졀술을 과음ᄒᆞ엿는지 인력거우에셔 몸을간우지못ᄒᆞ도록 취ᄒᆞᆫ스름도 잇는듸 동안동안이 면곳으로 좃ᄎᆞ학교죵소ᄅᆡ가 뎅々들니이니 이는음력명일은 관계치아니ᄒᆞ고 야학교ᄭᅡ지라도 휴학을ᄒᆞ지 아니ᄒᆞᆷ이러라

ᄯᅢ는 졍월십오일이니 낫부터치웁던날이 황혼ᄯᅢ일르러셔는 더욱 한긔더ᄒᆞ며 북악으로 좃ᄎᆞ나려오는 찬바람은 길우의ᄯᅴ글을 몰아셔ᄒᆞᆫ편으로 몰니치며 길가의뎐션에셔는 잉ㅣ잉ㅣᄒᆞ는 소ᄅᆡ울녀나아오는듸 놉ᄒᆞᆫ하ᄂᆞᆯ은 물로씨슨다시 구름ᄒᆞᆫ점도 보이지아니ᄒᆞ고 구슬갓흔별은 여긔져긔 쌀니엿는듸 그영롱ᄒᆞ고 날칼오운광치는 찬긔운을 더욱돕는것갓ᄒᆞ야 어둑어둑ᄒᆞ여가는 시가(市街)가 거의어름속에 뭇치인것갓다

이날낫에는 완연히 좃안에물ᄉᆞᆯ탓시 아히와어른이 찬々의복으로 취ᄒᆞᆫ스름 노

릭ᄒᆞ는ᄉᆞ름 희롱ᄒᆞ는ᄉᆞ름 웃는ᄉᆞ름 질기는ᄉᆞ름 각々졔ᄒᆞᆼ을 ᄎᆞᄌᆞ셔 죵일토록 질기다가 밤이 이슥ᄒᆞᆫ후붓터는 그림ᄌᆞᄒᆞᆫ아히 보이지아니ᄒᆞ고 다만 ᄉᆞ방이 고요ᄒᆞ야 잠든것갓흔ᄃᆡ 교번소압헤셔 번셔잇는 슌ᄉᆞ의 왓다갓다 거름것는ᄃᆡ 칼소릭만 데그럭데그럭ᄒᆞ여 그소릭 찬밤에멀니 울니여들니인다 홀연잇ᄃᆡ 에 쇼릭업는인력거에 등불ᄒᆞᆫ아이보이더니 그불이 엇더ᄒᆞᆫ골목으로 들어간후 는 다시보이지아니ᄒᆞ며 살을어이는듯ᄒᆞᆫ바롬은 젹々ᄒᆞᆫ비인밤에 요란히불ᄲᅮ이라 엇더ᄒᆞᆫ골목안에셔 늣게온쇼님을 ᄃᆡ졉ᄒᆞ노라고 쟝국을ᄉᆞ리는지 길싸로는 굴ᄃᆞᆨ에셔 연긔가일어나는ᄃᆡ 여름에 구름피어올으듯ᄒᆞᆫ다 그연긔가좁은골목모통이에셔 일어나쟈 그인력거는 당도ᄒᆞ야 셔로피치못ᄒᆞ고 그속을지ᄂᆡ여 온다

「어ㅣᄆᆡ와 인제져역군불을ᄲᅥ나

ᄒᆞ며 인력거탄ᄉᆞ름은 급히그연긔속으로 지ᄂᆡ여가는ᄃᆡ 먹고잇던여송연 타고 남아지를 인력거우에셔 ᄂᆡ여바리는ᄃᆡ 짜에떠러지더니 발간불에셔 연긔만 몰신몰신나고잇다

「그거웬 연긔가 그닥지 ᄆᆡ운야

「네ㅣ 지금 ᄂᆡ집힝낭에셔 군불을 ᄲᅥ나보오이다

ᄒᆞ며 인력거군이 ᄃᆡ답ᄒᆞᆫ후에는 그후로는 탄ᄉᆞ름이던지 ᄉᆞ는사름이던지 다시 말이업고 다만 인력거ᄉᆞ군의 발ᄌᆞ최소릭만 턱々ᄒᆞ며 인력거는 살닷듯닷는다

그인력거우에 안ᄌᆞ잇는신ᄉᆞ는 나히는 이십ᄉᆞ오셰나 되여보이며 임바네스를 몸에두루고 슈달피목도리를 깁히귀박휘ᄉᆞ지 둘넛스며 인력거와 등에는 영셔(英書)로 케(K)짜를 ᄲᅥ는ᄃᆡ 그인력거가 풍우갓치 압헤셔살며 뒤에셔밀어가더니 다방골 엇더ᄒᆞᆫ골목드러셔셔 남향으로는 와가평ᄃᆡ문 집으로가셔 인력거를나려놋는다

그신ᄉᆞ는 인력거우에셔 나려스더니 닷치여잇는ᄃᆡ문을 ᄲᅥ밀고 드어셔셔 즁문압헤일으러 안ᄃᆡ쳥을향ᄒᆞ야본다 등촉을 도도고 방안에셔는 소년남녀 ᄉᆞ오인이 둘너안쟈셔 윳을 노노라고 요란ᄒᆞ다 신ᄉᆞ는 다시즁문을지ᄂᆡ고 마당에들어셔셔「아지머니 게심이가」ᄒᆞ며 소릭ᄒᆞᄂᆞ 방안에셔는 윳치야 모야 넉동문니 셕동문이ᄒᆞ며웃고 들네는소릭에 그방안에 잇는ᄉᆞ름들은 속히알아듯지못ᄒᆞᆫ다 그신ᄉᆞ는 다시두어번 큰소릭로 불으니 그ᄯᅴ야 비로소 방안에셔 오십가량이나되여보이는 부인ᄒᆞᆫ아히 유리로나여다보다가 다시문을열고 고ᄀᆡ를ᄂᆡ미러본다

「그게누구야 식컴언ᄉᆞ름이

신ᄉᆞ는 모ᄌᆞ를벗고 갓가히 ᄃᆡ뜰우로 올나와 공손히 례ᄒᆞ며「졔올시다 컴々히셔 아마ᄌᆞ셔히 몰오시나 보이오다그려」그부인은 밋쳐ᄃᆡ답지못ᄒᆞ는ᄃᆡ 그방안 웃간에셔 둘너안쟈 윳노느라고 졍신업시 분쥬ᄒᆞ던즁에 ᄒᆞᆫ십ᄉᆞ오셰된 쳐녀ᄒᆞᆫ

아히 옷가락을 집어더지려ᄒᆞ다가 쓸압헤 손이와셔잇는 괴석을듯더니 그묵소리를 알아들엇는지 쏜에가젓던옷을 나려놋코 몸을벌덕일어 지게문을 펄덕열고 밧그로 ᄂᆞ아가며

「아이 오라버니 오셧구려 어셔들어오서요ㅣ 어머니는 오라버니도 그럿케 몰나보시고 누구냐고 작고뭇기만ᄒᆞ시오응

ᄒᆞ며 그신ᄉᆞ의 외투자락을 붓들어마루우으로 인도ᄒᆞ며 올니니 그제야 늘근부인도 알아보앗는지 마루로 좃쳐나아가며

「오 너왓구나 ᄒᆞ도캄々ᄒᆞᆫ듸 검은옷을 그럿케입고 왓스니々 늘근눈에 어듸 알아보겟늬 그릿셔 시히에는 소원셩취ᄒᆞ고 ᄯᅩ여러히만에 부모를뫼시ㅣ과계를ᄒᆞ엿스니 오작든々ᄒᆞ엿겟늬 어셔방으로들어가자

그신ᄉᆞ는 가장쥬져ᄒᆞ며 「안ᄉᆞ손님이 아마만히 게신모양인데 엇더케외인이들어갈수잇슴니가」늘근부인은 압흘셔셔 먼져방안으로 들어가며「아니ㅣ 쳔만에못볼ᄉᆞ름은 ᄒᆞᆫ아도업다 다 모두항열을 ᄎᆞ리면 남은안일다 이리들오ᄂᆞ라」

이집은 김소ᄉᆞ라ᄒᆞ는 ᄉᆞ름의집이오 지금마쟈들어온신ᄉᆞ는 그집쥬인김소ᄉᆞ의 친족ᄒᆞ되는ᄉᆞ름이니 일즉이 일본에유학ᄒᆞ야 경응의슉리지과(慶應義塾理財科)를 졸업ᄒᆞ고 집에돌아온지 슈월에지ᄂᆞ지못ᄒᆞ며 아즉셩취치 못ᄒᆞ얏스나 조션의구습으로 부모가 쳥ᄒᆞ야주는 안히는엇지아니ᄒᆞ고 쳔히눈으로보고 지

덕(智德)도잇거니와 용모도 아름다운녀ᄌᆞ를턱ᄒᆞ여 안히를삼고ᄌᆞᄒᆞ는듸 문벌과 학식을 보니보다 ᄎᆞ라리얼골이 어엽분ᄉᆞ름을 취코져ᄒᆞᆫ다

이날 그고모 김소ᄉᆞ집을 방문홈은 다만셰시일비를 ᄒᆞ고ᄌᆞᄒᆞ야 일음이아니라 그은근ᄒᆞᆫ가온듸에는 다른일이 ᄯᅩᄒᆞᆫ가지 감츄여잇슴이러라

김소ᄉᆞ의집은 이십여간되는와가이라 과거ᄒᆞᆫ부인의 살님으로 비록ᄉᆞ랑은 업스나 안ᄉᆞ방이)삼간이오 마로가 ᄉᆞ간이오 건넌방이 이간이오 그외에 쓸아릭로 ᄯᅩ죠고마ᄒᆞᆫ 방이잇스며 싱활ᄒᆞ는졍도 과이곤란치는 아니ᄒᆞᆫ모양이라 삼간안방에는 남포를 크게켜셔 ᄒᆞᆫ가운듸 노앗스니 발기는 빅쥬갓ᄒᆞ야 ᄉᆞ름의얼골々지 눈이부시도록 광치가는다 남녀오륙인은 그방웃묵으로 돌나안자 물불을헤아리지아니ᄒᆞ고 웃노는듸에 졍신이 가리웟다 등잔ᄉᆞ불에 온긔와 화로에피여노은 숫불의열긔(熱氣)와 여러사름의몸에셔 일어나는 훈증(薰蒸)ᄒᆞᆫ긔운이셔로얼키여 삼간방안에셔 비회(徘徊)ᄒᆞᆫ다

웃노々라요란히 덤비이는ᄉᆞ름들은 얼골이 모다빌것토록익엇스며 녀ᄌᆞ는 단쟝ᄒᆞᆫ분이 쌈에썩긔여 여긔져긔 육식(肉色)이 들어나셔 얼룩얼룩ᄒᆞᆫᄉᆞ름도 잇스며 싸은머리 쏙진머리 모다헛드러져셔 귀밋머리는 ᄒᆞᆫ모슴이빠지엇고 쏙진머리는 빈혀가 겨구로셧다 ᄒᆞ물며 입고잇는 옷은엇지되얏스리오

남ᄌᆞ는 두루막이의 옷고름을 떠러드린것도 아지못ᄒᆞ고 가삼을 펼처 노은치로

잇는스름도잇스며 두루막이도버셔놋코 죳기입은듸로 동적고리로 안잣는스름이잇다 그와갓치 숨이막히는온긔와 방안이 자욱혼연긔도 쉬닷지못ᄒᆞ고 모다밋치여아지못ᄒᆞᆷ과갓치 도로혀질기여 웃고짓거리며 셔로싸호며 닷호는소릐셔로쎄앗는소릐 방안이뒤놉는것갓다 이와갓치 쇼요혼모양은 남녀의분별과삼강오샹(三綱五常)이 모다업셔지고 혼돈셰계가 다시돌라왓는지 다만수라도장(修羅道場)을지엿더라

그러ᄂᆞ 그즁에혼녀ᄌᆞ는 마지못ᄒᆞ야 그릇노는 동모즁에 혼가지로 셕기여 작란은ᄒᆞ고잇스나 남과갓치 셔로닷호는일도업고 다만단졍히 안ᄌᆞ셔잇스니 머리는 히ᄉᆞ시가미 (셔양녀편네의머리) 로쏙지고 국화(菊花)쏫송이 가화 (假花)를 쏫잣스며 자지모본단 덧져고리에 옥식삼팔 통치마를입고 발에는 털로만든 양말을 신엇스며 얼골은 단장도 아니ᄒᆞ얏스나 히당화가 아츰이슬을 먹음은듯혼 화려혼용모는 가위련연혼 아름다움(天然美)을 발표홈이라 코ᄉᆞ날은옷독ᄒᆞ고 눈은어글어글ᄒᆞ며 입은조고마ᄒᆞ여 보는ᄉᆞᄅᆞᆷ마다 ᄉᆞ괴오고십은마음이 ᄉᆞᄉᆞ로싱긴다

그윳이 쏫이나기젼에 지금인력거타고 온ᄉᆞᄅᆞᆷ은 발셔셔로 쳑분을ᄎᆞ리여 례ᄒᆞ고 보앗스며 그녀ᄌᆞ의 셩명은 심슌의(沈順愛)이니 그신ᄉᆞ의 고모 김소ᄉᆞ의 시집싱질녀이라 비록 촌슈와 쳑분을 ᄃᆡ이기는 쇽담의일은바 ᄉᆞ돈의팔촌

이지만은 이왕혼방에안져셔 셔로말업시 쇼닥보듯ᄒᆞ는이보다 도로혀 원쳑이라도 쳑분을 ᄎᆞ리미 낫다ᄒᆞ야 그심슌의라ᄒᆞ는 녀ᄌᆞ뿐아니라 다른녀ᄌᆞ와 또는 다른ᄉᆞ나희ᄒᆞ고도 인ᄉᆞ를 맛쵸이니 지금들어온 신ᄉᆞ의 셩명은 김즁빈(金重培)라 ᄒᆞ고 년긔는 이십ᄉᆞ오셰되엿스며 키는 샹당히 크고 살도 맛도적도아니ᄒᆞ게 안맛치잇스며 얼골은 관옥갓고 양협에는 홍도식이낫타ᄂᆞ며 이마는 널직ᄒᆞ고 입은 크며 턱에 써는 좌우로 쑥ᄂᆡ여밀어 면젹(面積)널분얼골은 졍방형(正方形)을 일우엇고 곱실곱실ᄒᆞ게 지진멀이는 혼가온ᄃᆡ를 좌우로갈나셔 기름과 직구를발나 기름이듯는닷시 빗기여 붓치엿는ᄃᆡ 만치못혼슈염은 웃입살에잇는것만 남기여두엇고 져지아니혼코에는 금테안경을 거럿더라 옷은 후록코ㅣ투를입엇고 족기혼가온ᄃᆡ에는 손가락갓흔 금시게ᄉᆞ줄을 길게늘이엿는ᄃᆡ 그고모 김소ᄉᆞ와 혼가지로 아릐목에 졈잔히 안자셔 좌즁을나려다 보는모양은 진즛 그방중에잇는 여러남녀를 업슈히녁이는듯ᄒᆞ다 그러ᄂᆞ 그방중에는 여러남녀중에 이신ᄉᆞ와갓치 얼골도희고 모양도ᄂᆡ고 의복도찬란히 장쇽혼ᄉᆞᄅᆞᆷ은 혼아도업는 모양이라

그좌즁에는 남ᄌᆞ가 두ᄉᆞᄅᆞᆷ이잇스니 그신ᄉᆞ가 비록 쳔족하라ᄒᆞ나 쥬인김쇼ᄉᆞ의모여가 그ᄉᆞᄅᆞᆷ에게 ᄃᆡ혼ᄃᆡ졉이 다른친쳑보다 특별혼졈이만은고로 김즁빈(金重培)의 일거일동(一擧一動)을 다른남ᄌᆞ들은 심샹히 보지아니ᄒᆞ고 눈녁

여본다

「그게 웬조야 우수어못보겟네

ᄒᆞ며 옷판에안조잇는 두스름스나희중에 혼스름이 엽헤안자잇는 학성복장입은 스름의무릅을 ᄭᅮᆨ찔으며 눈씻ᄒᆞ고 감아니말혼다

「아ㅣ이 참 아니꼬운놈 다보겟네

ᄒᆞ며 엽헤안잣든학싱(學生)은 춤을비앗듯시말을ᄒᆞ고 고기를 웃간으로 도로 껜다

김즁비라 ᄒᆞ는신스는 이윽히안자 좌즁의잇는 남녀여러스름즁에 심슌익의 모흐로 안진얼골을 정신업시 바라보다가 다시그고모 김소스를 향ᄒᆞ여 「아 아지머니 잠간죠용히 엿줄말삼이잇스니 죠용혼방으로 잠간뵈왓스면 좃켄는데요」 김소스는 해스ᄒᆞ게늘근얼골에 쥴음이여러져 잡히엿고 눈은죠고마ᄒᆞ고 입은 혼편으로 빗도러진듯ᄒᆞ여 쐬만코 욕심이잇셔보이며 입에는 장쵹을물고 퍽퍽듸우다가 「응 그리ᄒᆞ지ㅣ 이익슌아 옷좀고만놀고 심브름좀ᄒᆞ여라 건넌방의불좀켜 노아라

슌이라ᄒᆞ는녀즈는 그김소스의쌀이니 나히지금 십스오셰된 편발쳔녀라 그모친의말을듯고 얼는일어스며 「나난지금 셕동가오 잇다가 공연히 뗴들쓰지말아요」 ᄒᆞ며 혼가지로 옷놀던 동모에게 부탁ᄒᆞ고 방바닥에잇는 셕양을집어가

지고건넌방으로간다

김소스는 담비스듸를들고 일어스며 「이익 즁비야 져방으로 건너가자」 ᄒᆞ며 옷노는판 한가온듸를헛치고 나아간다 그신스도 뒤으로따라나아간다

그신스가 여러스름안자잇는 가온듸로 지ᄂᆡ여갈ᄯᅢ에 그손 넷지손가락 무명지에 광치나는물건이잇는듸 심상치아니ᄒᆞ고 그 굿셰인광치는 등불빗과 혼가지로 찬란ᄒᆞ야 거의 바로보기 어렵도록 눈이부시인다 그신스는 그방즁에잇는 스름으로 일즉이 말은들엇스나 보지는못ᄒᆞ얏던 금강셕(金剛石)반지를 세엿더라 좌즁에잇던 여러남녀는 그반지의 광치을보고 모다혼번은 놀ᄂᆡ기를마지아니혼다

슌이라ᄒᆞ는 쳐녀는 건는방에 불을켜놋키를 맛츄고 급々히 옷판으로 도라오더니 말판붓터 드러다본다

「ᄂᆡ말은 다어듸로갓셔 나업는ᄉᆡ 모도들속엿지요

심슌익라ᄒᆞ는 녀즈는 그말듸답은 ᄒᆞ지아니ᄒᆞ고 슌이라ᄒᆞ는 쳐녀의 무릅을ᄭᅮᆨ찔으며

「이익 지금오신 손님이 세고게신 반지는 그게무신반진데 그럿케몹시 셔긔가빗치니

아이고 언니도 그것이 무엇인듸 그리ᄒᆞ오 그것이 금강셕이라오

「어ㅡ으 금강셕이 그러흔가 나는쳐음이야
「그게갑이 오빅원짜리라오 이만오쳔냥
그쳐녀의 말을듯더니 그녀즈는 기가막히는지 다시한참은말이업시 심즁으로
는 그갑만흔것을 놀닉이며
「아 이 그건참 보비답드라 갑도만치만은
젹은 콩알만흔진쥬(眞珠)박은반지를 흔아세고즈ᄒᆞ야 몃히를두고셔 항상별으
고 잇건만은 오히려 용이히 엇지못ᄒᆞ고 욕심만 ᄀᆞ득ᄒᆞ던 년쇼흔쳐녀의 가슴
이라 이와ᄀᆞᆺ흔 보비를보ᄆᆡ 홀연 무삼일을 싱각ᄒᆞ엿는지 가슴만두근두근흔다
그녀즈는 망연히 윳놀기도 이져바리고 거의 닉몸ᄭᅴ지 이져바리며 온젼흔정
신은 별건곤에서 서로비회흘ᄯᅴ에 벽녁ᄀᆞᆺ흔소릭에 번ᄀᆡᄀᆞᆺ치 윳가락이떠러지
며 흔남즈의 손이윳판으로오며 「이것두동문이는쥭고 나는인제 막간다
슌이라ᄒᆞ는쳐녀는 말쥭인것을 분히역이여 슌의의무릅를 탁々치면서
「아이언니 무엇을그럿케 졍신업시안졋소 두동문이가 져업바 말에게쥭엇는
ᄃᆡ 그것도몰으고
그녀즈는 비로소 공상(空想)의쑴을 ᄭᆡ엿는지라 능히 밋치지못흔일이라고 즈
긔가스사로 단렴ᄒᆞ엿스나 그러나 흔번금강셕(金剛石)의 현황흔광치에 홀닌
마음은 얼마간 디각(知覺)을 일은지라 지금ᄭᅡ지 흥긔잇시 노든윳이 스스로

손이어지러워지고 용밍이 죠곰도일어나지아니흔다
그방즁에 모힌녀즈는 그신스의 ᄉᆞ치홈과 그신스의 부요(富饒)홈을 차탄치아
니리업스며 남즈등은 모다 그신스의 거만홈을 미워ᄒᆞ지 아니리업다
이제 그집건넌방에셔는 슉질두스름이 무삼이약이를 조용조용ᄒᆞ게흔다
「아지머니 져는이번 음력시힉에 쑴을아마잘 ᄭᅮ엇나보오이다 오날은 가위
소원을 셩취ᄒᆞ엿슴니다 아즈마님덕틱에
「아이 소원셩취를ᄒᆞ엿다니 고맙다 그러나 오날은 네가 일만은쥴도 알건만
은 일부러 잠간오라고 긔별을ᄒᆞ엿더니 와셔보니 허힝은 아니흔모양이냐
「허힝만아니 ᄒᆞ얏슬ᄲᅮᆫ아니라 평싱소원을 맛츄엇슴니다
그고모는 빗두러진듯흔입으로 설々우스며
「네눈에 드는사름이 다잇스니 인제는 우리집에 경사낫다 날도 칩고ᄒᆞ니
슐이나흔잔 먹어보려느냐
「슐을 어듸먹을줄암니가 그러나 오날도 하도마음이 흡족ᄒᆞ니 한잔쥬시면
먹겟슴니다
김소사는 소리쳐 그ᄯᅳᆯ 슌이를부른다「슌아ㅡ슌아ㅡ」ᄒᆞ나 안ᄉᆞ방에셔는 윳을
다토와노라 들네는소리에 속히 알아듯지못흔다 고모는 화가와락나셔 문을열
고 안ᄉᆞ방으로 건너가더니 지게문을 덜걱열고 담비ᄃᆡ로 그ᄯᅳᆯ의 억ᄀᆡ을 ᄎᆞᆨ찔

으며「앗다 요년아 아모리욧에 밋쳣기로 귀좃츠먹엇단말이냐 오리만에 오라비가 우리집에왓스니 와서이약이나ᄒᆞ고 인사를 더러츠려야지 사름이 엇지히셔 그럿탄말이냐 올아비가 술혼잔먹겟다고ᄒᆞ니 술두어잔만열는 데웨가지고오나라」ᄒᆞ며 은근히 쓸을ᄉᆞ지져 경계ᄒᆞ고 다시건는방으로 건너간다

김중빈는 두손을 화로에언고 화로의불피여 올으는모양을 정신업시 나려다보며 무삼싱각을ᄒᆞ다가 그고모가 들어오는소리에 쌈짝놀ᄂᆡ이는듯이 고ᄀᆡ를번쩍들며

「그러나 아지머니 그녀즈가 아지머니 싱질녀라ᄒᆞ니ᄭᅡ 그신분「身分」은다시 물을 필요도업슴니다만은 그집안은 지ᄂᆡ기는엇더ᄒᆞ며 부모도 다게심니가」

「그집은 바로 이동리에잇는ᄃᆡ 살기도 그리어렵지는 아니ᄒᆞ고 늘근ᄂᆡ외가 규모로 간신간신이 지ᄂᆡ나보더라 젼에는 져의 아버지 심틱(沈澤)이라ᄒᆞ는 니가 벼살ᄀᆡ나 단이엿나 보드라만은 지금은 놀고……」

「그러나 당즈의 위인은 엇더혼지요 졔일첫지문졔가 그거올시다」

「위인은 다시말ᄒᆞᆯ것업다 ᄂᆡ가담당이라도 ᄒᆞᆯ터이다만은 단지혼아가 염여되는일은 그아희부모가 십여년젼붓터 더릴사위를 한사름엇어다가두고 지금것 학교에도보ᄂᆡ여 공부식이는ᄃᆡ 아마올봄쯤은 셩례를혼단말을 들엇스니 그부모가 말을잘들을는지를 모를듯ᄒᆞ다」

「그야 아지머니씌셔 힘쓰시게 달엿겟지요 ᄯᅩ는 바른ᄃᆡ로 말슴이올시다 데릴사회라ᄒᆞᆯ졔는 그사름은퓔 연고단혼사름 인게올시다그려 이왕사회를엇는ᄃᆡ 그런무밋듕ᄀᆞᆺ흔 사름을엇는니보다 져와ᄀᆞᆺ흔 지산도잇고 학문도잇는 상당혼사회를 엇는것이 낫지아니ᄒᆞ겟슴니가 그럿케 말슴을ᄒᆞ셔셔 달ᄂᆡ보시면되겟지오」

「오냐 념녀말아 ᄂᆡ가엇더케든지 힘써셔 주션ᄒᆞ여봄아」

「그러나 만일 이일이 셩사치못ᄒᆞ면 져는아지머니를 원망ᄒᆞᆯ수밧게 업슴니다」

ᄒᆞ며 양복주머니를 두젹두젹ᄒᆞ더니 돈오십원을ᄂᆡ여 고모를주며「아버지씌셔 아지머니 ᄀᆞᆺ다드리라고ᄒᆞ여셔 가자왓슴니다 졔밋쳐셔는 총요ᄒᆞ여셔 못보ᄂᆡ엿다고ᄒᆞ셔요」김소ᄉᆞ는 반가이밧으며「돈은 무얼보ᄂᆡ단말이냐 쓰기는잘쓰겟다만은 이즈음에 그쓸슌이는 술상을가지고 들어오는지리 고모는 ᄒᆞ던의론을 ᄭᅮᆨ끈친다 슌이는 술상을압헤 노으며「오라버니 약쥬혼잔잡슈시오 안쥬는업셔도 그런대 오라버니는 나ᄒᆞ고 욧혼번놀지 아니ᄒᆞ시료」김중빈는 손을들어웃수염을 좌우로쓰다듬어 올니는손에는 금강셕반지에셔 찬란(燦爛)혼 광치는 ᄃᆞ

「허허 ᄂᆡ가 욧을 놀줄아난가 그러ᄂᆞ 누의가 가르처주면 작란으로라도 놀

아보지
ᄒᆞ며 ᄯᅳᆯ아노은 술잔을집어 마실ᄯᅢ마다 금강셕광치에 눈이부시인다
김즁빈의 부친은 김형슌(金瑩淳)이라 ᄒᆞ는사름인ᄃᆡ 경셩에셔 유명ᄒᆞᆫ지산가로 실업계(實業界)에 웅비(雄飛)ᄒᆞᆯᄲᅮᆫ아니라 각쳐에 은힝을셜립ᄒᆞ며 그아달 김즁빈는 루ᄃᆡ독ᄌᆞ로 일즉이 동경에유학ᄒᆞ얏스며 귀국ᄒᆞᆫ후는 어진비필을 ᄉᆞ방으로구ᄒᆞᆷ의 지산을보던지 ᄯᅩᄂᆞᆫ신랑지목으로 말ᄒᆞ던지조곰도 흠졀잡을ᄃᆡ가 업는고로 각쳐에셔 통혼이 닷토아 들어온다 그러나 모다 김즁빈의ᄯᅳᆺ에 맛지 못ᄒᆞᆷ으로 반ᄃᆡᄒᆞ야 퇴각ᄒᆞ고 오날ᄭᅡ지 졕당ᄒᆞᆫ지목을 엇지못ᄒᆞ야 은근이구ᄒᆞ기를 마지아니ᄒᆞᆫ다 그고모김소ᄉᆞᄂᆞᆫ 그싱질녀 심슌의의 인물을 항상흠모ᄒᆞ던터이라 그런고로 이날슌의가 맛참와셔 늣도록노ᄂᆞᆫ것을 긔회를삼아셔 그족하 김즁빈를불너 션을보게ᄒᆞᆷ이니 과연이날 슌의의얼골이 김즁빈의 마음에드러 쥬목ᄒᆞᆷ에 일으럿더라

김즁빈ᄂᆞᆫ 귀국ᄒᆞᆫ후로 그부친이 셜입ᄒᆞᆫ은힝(銀行)ᄃᆡ뎜(支店)이 평양(平壤)에 잇ᄂᆞᆫ고로 그곳ᄃᆡ뎜장으로 쳔거ᄒᆞ야 보ᄂᆡ게되얏ᄂᆞᆫᄃᆡ 그곳에ᄂᆞᆫ ᄯᅡ로이크게 집을지여 그아달로ᄒᆞ야금 거쳐케ᄒᆞ얏스나 다만안ᄉᆞ쥬인을 졍치못ᄒᆞ야 고루거각이 공연히히빗에걸고 바ᄉᆞ물에씩기여 다만힝랑치에 수족이로 들녀둔늘근 하인 ᄂᆡ외만 쳑々ᄒᆞᆫ 큰집안에셔 셔로향ᄒᆞ야 안지면 옛날에 지ᄂᆡ인 이약이로

두런두런 날을보ᄂᆡᆯᄲᅮᆫ이라

졔이장 歸途 (도라오ᄂᆞᆫ길)

윳노리ᄂᆞᆫ 열두시가 지ᄂᆡ여셔 비로소맛치엿ᄂᆞᆫᄃᆡ ᄒᆞᆫ스름 두ᄉᆞ름식헛터지고 다만 남아잇ᄂᆞᆫᄉᆞ름은 심슌의와 학싱복장입은 남ᄌᆞᄒᆞᆫ사름이오 그외ᄂᆞᆫ 쥬인김소사와 그ᄯᅳᆯ슌이ᄲᅮᆫ이라
처음에 김즁빈(金重培)도 그윳판에 참예ᄒᆞ야 한가지로 질기고ᄌᆞᄒᆞ니 그사름의 윳노ᄂᆞᆫ것은 그노름이ᄌᆞ미잇셔 그리흠이아니오 다만심중으로 흠모ᄒᆞᄂᆞᆫ 심슌의(沈順愛)와 한가지로 지쳑(咫尺)에 안자잇셔셔 셔로수쟉ᄒᆞᄂᆞᆫ영광을 엇으면 잠시라도 마음에 만족흠을 엇을가흠이라
그러나 좌중에잇ᄂᆞᆫ 녀ᄌᆞ등은 모다그김즁빈의 ᄉᆞ치ᄒᆞᆫ의복과 셔긔쩻치듯ᄒᆞᄂᆞᆫ 금강셕(金剛石)반지의 광치에 졍신이 한갈ᄀᆞ치 그곳으로만 ᄲᅳᆯ니여 그신ᄉᆞ의 부요(富饒)ᄒᆞᆫ것과 그신사의 사나희다운 동작(動作)과 그신사의 년긔ᄂᆞᆫ아즉 숨십을 넘지못ᄒᆞ얏스되 임의히외(海外)에 유학(遊學)ᄒᆞ야 고등학문(高等學問)을 졸업ᄒᆞ고 장ᄅᆡ가유망(將來有望)ᄒᆞᆫ 일ᄀᆡ청년신사(一個靑年紳士)로 금의환향(錦衣還鄕)ᄒᆞᆷ을 ᄉᆞ름마다 모다흠모ᄒᆞ되 더욱이 이좌중에잇ᄂᆞᆫ 녀ᄌᆞ등의 무한ᄒᆞᆫ 슝ᄇᆡ(崇拜)를밧ᄂᆞᆫ다
좌셕중에 학싱복장입은사름과 ᄯᅩ ᄒᆞᆫ ᄉᆞ름의남ᄌᆞᄂᆞᆫ 김즁빈의 고만무례 (高慢無

禮)ᄒᆞᆫ힝동을 무이보아 그신사를 바라보는 두남ᄌᆞ의 목ᄌᆞ는 ᄌᆞ연히 곱지못ᄒᆞ야 무산괴회를 타든지 져와ᄀᆞᆺ치 가증가통(可憎可痛)ᄒᆞᆫ 위인의 면피(面皮)를 벗기여 다ᄃᆡᄒᆞᆫ 무안과 욕을보이리라ᄒᆞ야 남ᄌᆞ의편에셔는 은근ᄒᆞᆫ사이에 발셔 사발통문을 돌니엿더라

윳돌기를 시작ᄒᆞ야 편을짜려ᄒᆞᆯᄯᆡ에 쳅이를(抽籤) 쌉아 편을가르는ᄃᆡ 쳅이(抽籤)의 결과는공교히 김즁빈(金重培)와 심슌의(沈順愛)가 ᄒᆞᆫ편이되엿더라 김즁빈는 나의가장 흠모ᄒᆞ는 녀ᄌᆞ와ᄒᆞᆫ편이됨을 하날이나으로ᄒᆞ야금 셩공케 도으심인가ᄒᆞ야 은근히 깃거ᄒᆞ되 그외에남ᄌᆞ는 더욱미워ᄒᆞ기를 마지아니ᄒᆞᆫ다

비로소 윳을놀기 시작ᄒᆞ야 반이지ᄂᆡ엿는ᄃᆡ 형세는 김즁빈의편이 거의기우러지게 되엿는고로 김즁빈는 다른사름은 업슈히녁이고 진즛 억지를써셔 남의게 지々아니코ᄌᆞᄒᆞ다가 처음붓터 불호ᄒᆞᆫ마음을 먹엇던 남ᄌᆞ등에게 실칙(失策)ᄒᆞᆫ빈되야 ᄃᆡ々여 닷홈이 일어나니 과불쳑중으로 김즁빈는 호을노 남의게 무한ᄒᆞᆫ 슈치만밧고 포두셔찬(抱頭鼠竄)ᄒᆞ야 도라가니라

모다사름이 도라간후 심슌의(沈順愛)는 벽에결니엿던 만또(滿套)를 나리여 몸에둘으며 그외슉모 김소ᄉᆞ의게 하즉ᄒᆞ고 학싱복장입은ᄉᆞ름도 심슌의를싸라셔 외투(外套)소ᄆᆡ의 팔을세우면셔 인사ᄒᆞ고 한가지로 ᄃᆡ문을나셔셔 마조

치는 찬바람에 몸을움치고 발을동々구르며 두손은 외투주머니속에 집어넛코 뒤에떠러져잇는 슌의가 오기를기다려 그학싱은 말을ᄒᆞᆫ다

「여보 슌의 악가 그 금강셕반지센놈이 그게 웬놈이야 ᄃᆡ단히 거만슬업든 걸」

「글셰요 그럿치만 여럿이셔 너모들 욱박질너셔 무안을주니ᄭᅡ 보기에 너모 불안합ᄃᆡ다 나ᄭᅡ지 무안ᄒᆞ데」

「그럿치 그놈이 바로 교만ᄒᆞᆫᄃᆡ도를 ᄒᆞ고잇스니ᄭᅡ 그럿치 나도엇지 밉살머리스러운지 더망신을주려다가 그주인집 쳑분되는ᄉᆞ름이라기에 얼마콤용셔ᄒᆞ얏지」

「글세 여보 그것은 무즌짓이오」

「그럼놈은 사나희의 눈으로보면 안니쬬아셔 구역이나지만은 녀편네들은 엇더ᄒᆞᆫ지 아마녀편네는 그런스ᄂᆞ희가 마음에들지」

「별소리가 다 만아 ᄂᆡ가알슈잇소」

「몸에셔는 향슈ᄂᆡ음시가 홀々ᄉᆡ치고 손에는 금강셕반지가 번쳑번쳑ᄒᆞ고 모양도 훌륭ᄒᆞᆫ 신ᄉᆞ갓흐니ᄭᅡ 필연죠와홀터이지 ᄒᆞ며 학싱은 죠롱ᄒᆞᆫ듯이 허々웃는다」

「나는 아니 그ᄃᆡ요

「응ㅡ아니 그러ᄒᆞᆫ스름이 ᄒᆞᆫ편이 되엿슷가
「그것은 졔비가 그럿케되엿지 ᄂᆡ가일부러 그리힛습듸가
「아모리 졔비가ᄒᆞᆫ일이라고 말은ᄒᆞ지만은 ᄒᆞᆫ편이되여가지고는 파이실여ᄒᆞ
는모양도 못ᄒᆞ겟든데그릐
「여보 그런 억졔에 소리는 좀ᄒᆞ지마오
「오빅원짜리 금강셕반지는 도져히 우리갓흔놈이야 바라볼슈ᄂᆞ 잇는일인가
「아니 모르겟소 아모리ᄂᆞᄒᆞ오
ᄒᆞ며 슌익는 목도리를 칙키여 얼골을 반이나 가리운다
「아ㅡ츄어
ᄒᆞ며 학셩은 억ᄀᆡ를 츗셕거리며 엽흐로 갓가히온다 슌익는 오히려 묵묵ᄒᆞ고
거러간다
「아ㅡ츄어
슌익는 ᄯᅩᄒᆞᆫ듸답이업다
「아ㅡ츄어
슌익는 그때야 비로소 그 학셩을 도라보며
「웨 그리오
「아이고 이상스러워라 그건무신짓이야

「츄어셔 못견듸겟스니 그속에다가 좀집어너허주게ᄂᆞ그려
「무슨속에다가」
「그 만ᄯᅩ속에다가」
「아이고머니 슝히라」
그학셩은 얼픗시 슌익의입은 만ᄯᅩ쟈락을혓치고 몸을그속으로 넛는다 슌익는
웃기를 마지아니ᄒᆞ며
「아이고 이건웬일이오 망칙ᄒᆞ여라 거북ᄒᆞ여서 어듸거름이ᄂᆞ 것겟소 예ㅡ
그 져괴서 스름이 오ᄂᆞ보오
이와갓치 죠곰도 ᄉᆞ리지아니ᄒᆞ고 희롱ᄒᆞᄂᆞᆫ듸 녀ᄌᆞ도별노히 금지치아니ᄒᆞ고
ᄒᆞᄂᆞᆫ듸로만 그져두니 그 남녀두스름의 관계가엇더ᄒᆞ뇨 드름이아니라 그학셩
은 부득이ᄒᆞᆫ 스정으로 인연ᄒᆞ야 심틱(沈澤)의집에 십여년동안을 붓치여잇는
리슈일(李守一)이니 이히여름에는 고등학교을 졸업ᄒᆞ고 관비유학셩 (官費留
學生) 으로 동경(東京)에 갈터인듸 이학교를 졸업ᄒᆞᄂᆞᆫ날은 심틱의ᄯᅳᆯ 심슌이
와 젼일언약과ᄀᆞᆺ치 혼례를일우게된 스름이러라

제ᄉᆞᆷ장 孤依 (의로운의탁)

리슈일(李守一)이가 십여년 동안을두고 심틱(沈澤)의집에 붓치여잇슴은 의
탁ᄒᆞᆯ바이업서 그곳에 슈양(收養)됨이라 그모친은 슈일이 어렷슬ᄯᅢ에 세상을

바리고 그부친도 어린아달의 쇼학교를 졸업ᄒᆞ는것도 보지못ᄒᆞ고 오릭ᄉᆞ동안을 병으로 신음ᄒᆞ다가 드듸여 도라오지 못ᄒᆞᆯ길을떠느니 슈일의 익통(哀痛)ᄒᆞᆷ은 다시말ᄒᆞᆯ바이 아니어니와 그부친의 신체를 장ᄉᆞ지내는동시에 ᄌᆞ긔의 젼도(前途)의 소망(所望)도 한가지로 장ᄉᆞ치아니치못ᄒᆞᆯ 불힝ᄒᆞᆫ경우를맛낫도다 그부친이 살아서잇는날에도 미삭월샤로(月謝)긔십젼식을 디출(支出)ᄒᆞ기에 피를흘ᄂᆞᆫ것갓흔 곤난을겨ᄂᆞᆫ 공궁ᄒᆞᆫ형셰이라 그ᄯᅢ는 슈일의나히 십셰에일으지못ᄒᆞ얏ᄂᆞᆫᄃᆡ 학교에다니며 공부ᄒᆞ기보다 급ᄒᆞᆫ일은 호구(糊口)ᄒᆞᆯ계칙이요 호구ᄒᆞᆯ계칙보다 ᄯᅩᄒᆞᆫ급ᄒᆞᆫ것은 부친의신셰을 안장ᄒᆞᆯ일이오 이보다더욱 급ᄒᆞᆫ일은 그부친의병즁에 간호의약(看護醫藥)등이 모다 급ᄒᆞ엿더라 능히 독립ᄌᆞ활(獨立自活)을 경영치못ᄒᆞᄂᆞᆫ 어린아희가엇지 이와갓흔 급ᄒᆞᆫ일을 구홈이 능ᄒᆞ얏스리오 원릭에 슈일의힘으로ᄂᆞᆫ 밋지못ᄒᆞᆯ바이오 다만 심릭(沈澤)의힘으로인ᄒᆞ야 호구지칙과 약용범졀과 쵸종졔구에 일으기ᄭᅡ지 모다 은혜를입엇더라

심릭이라 ᄒᆞ난ᄉᆞ름은 젼일에 슈일에부친에게 둣터운은혜을 밧은은인인고로 이젼은혜를 ᄀᆞᆞᆞᆞ라도 갑고ᄌᆞᄒᆞ야 이와갓치 친졀이ᄒᆞ얏슴이니 다만슈일의 부친이 병즁에 잇슬ᄯᅢ뿐이아니라 평일에도 항상슈일의월샤도 ᄂᆡ여주며 살님에 부족ᄒᆞᆫ것도 보죠ᄒᆞ엿더라

슈일은 부친이도라간후 더욱이 가셰가 곤난ᄒᆞᆷ을 면치못ᄒᆞ야 ᄯᅩᄂᆞᆫ 좌우에 감근지친이 업슴으로 부모업ᄂᆞᆫ 외로운아희를 가긍이역이여 심릭은 ᄌᆞ긔의집에 다려다가 양육(養育)ᄒᆞ니 한편으로ᄂᆞᆫ 젼일은혜를 보답ᄒᆞ기에 살아잇슬ᄯᅢ뿐 아니라 ᄉᆞ후(死後)ᄭᅡ지라도 계속ᄒᆞ야 리슈일로ᄒᆞ야금 장셩ᄒᆞ야 장릭에 유위인물(有爲人物)이되도록 셩인(成人)을식이여 그망인(亡人)이 일일이라도 잇지못ᄒᆞ던 심지(心志)를 갑고ᄌᆞᄒᆞᆷ이라

슈일의부친이 일즉이말ᄒᆞ되 우리집은 원릭에 문벌가(門閥家)의 집안니라 무삼면목으로 ᄂᆡ아달 슈일로ᄒᆞ야금 남의게 업슴을밧게ᄒᆞ릿오 셰상은 날로변쳔(變遷)ᄒᆞ야 오날날에 일으럿스니 다만 젼일구습의 안목으로만 볼것이아니라 ᄂᆡ의 아달도 학교의공부식이여 멀니 히외에ᄭᅡ지라도 유학게ᄒᆞ야 다시우리집으로ᄒᆞ야금 ᄉᆞ민(四民)의 두목(頭目)이 되게ᄒᆞ리라 ᄒᆞᄂᆞᆫ말로 슈일을 항상경계ᄒᆞ고 ᄯᅩᄂᆞᆫ 심릭을 만날ᄯᅢ마다 이말로써 부탁이라 그런고로 리죵ᄒᆞ야ᄂᆞᆫ 다시 별노히 부탁ᄒᆞᆷ이업스되 평일부탁이 즉 유언(遺言)과갓치 되엿더라

그런고로 슈일이가 심릭의집에 잇ᄂᆞᆫ것은 결코 부지군으로잇셔셔 집안ᄉᆞ름의 눈쏠찝푸리ᄂᆞᆫ 얼글은 당치아니ᄒᆞ고 도로혀 친ᄌᆞ뎔보다 더욱 ᄋᆡ지즁지홈으로 보ᄂᆞᆫᄉᆞ름드른 리슈일의 힝복(幸福)을 일크르며 심릭의 의리(義理)잇슴을 칭도(稱道)ᄒᆞᆫ다

심틱의부부(夫婦)는 슈일을 은인의긔렴(恩人之紀念)으로 더욱더욱 친절ᄒᆞ고 뎡즁(鄭重)히 ᄃᆡ졉ᄒᆞᆫ다 그럼으로 져와갓치 슈일을 사랑ᄒᆞᆷ을 보는ᄉᆞ름은심틱의부부가 슈일로ᄒᆞ야금 ᄉᆞ회(女婿)를 삼고ᄌᆞᄒᆞᆷ인가 ᄉᆡᆼ각ᄒᆞ는 ᄉᆞ름도잇스나 그당시는 심틱의 부부의마음이 아즉 그곳ᄭᅡ지는 밋지못ᄒᆞ엿더라 그러나 리슈일(李守一)의 위인이 단아졍즉(端雅正直)ᄒᆞ며 학업을독실히ᄒᆞ야 시험마다 우등(優等)의 ᄌᆞ리를 점령ᄒᆞ는고로 점점ᄉᆞ회를 삼고ᄌᆞᄒᆞ는마음이 밍동ᄒᆞ야 슈일이가 고등학교(高等學校)를 졸업ᄒᆞ는날에는 셩례(成禮)를 식이고ᄌᆞ 결뎡ᄒᆞ얏더라

슈일의 이와ᄀᆞᆺ흔 위인과 이와ᄀᆞᆺ흔 셩질에 더욱학문을 열심연구ᄒᆞ는고로 일후셩공ᄒᆞ는날에는 진실노 다시엇기어려운ᄉᆞ회라고 늘근부부는 그옥히 깃거ᄒᆞ기를 마지아니ᄒᆞᆫ다 리슈일은 원리문벌가(門閥家)의 ᄌᆞ손으로 초년(初年)에 신운(身運)이 불길(不吉)ᄒᆞ야 비록남의집에 몸을붓처여잇셔 여러가지로 신셰는 지고잇스ᄂᆞ 타일에 입신양명(立身揚名)ᄒᆞ면 이와갓흔 후은은 당연히 보답(報答)ᄒᆞᆯ지라 남아(男兒)로 이셰상에 출셩ᄒᆞ야 엇지남의 데릴ᄉᆞ회로 비루(卑陋)ᄒᆞᆫ 처가ᄉᆞ리를ᄒᆞ리오 이와갓흔 굴욕(屈辱)은 리슈일의셩질로 능히 ᄒᆞ고ᄌᆞᄒᆞ지 아니ᄒᆞ는바이라

그러ᄂᆞ 슌이(順愛)와갓흔 아름답고 졍슉(靜淑)ᄒᆞᆫ녀ᄌᆞ와 ᄒᆞᆫ가지로 빅복의 근

원(百福之源)을 밋게됨은 슈일로ᄒᆞ야곰 처가사리ᄒᆞᆫ다는 슈치도능히 이져바리고 다시도라보지 아니ᄒᆞ게되엿더라 그럼으로 리슈일은 심틱의부부의 질거ᄒᆞᆷ보다 더욱질기여 더욱더욱 학문을 면려(勉勵)ᄒᆞᆫ다

슌이(順愛)도 슈일(守一)을 가장사랑ᄒᆞᆫ다 그러나 슈일이가 슌이의게 향ᄒᆞᆫ마음에는 능히 지ᄂᆞ지못ᄒᆞ리로다

슌이는 스ᄉᆞ로 ᄌᆞ긔의 ᄌᆞ식이 아름다움을 아는연고이라 무릇셰샹에 남녀를 물론ᄒᆞ고 ᄌᆞ긔의얼골이 아름답고 아름답지아니ᄒᆞᆷ을 엇지모로리오만은 다만 념녀ᄒᆞ는바는 슈이는 ᄌᆞ긔의아름다움을 과히지닉게 밋음이라

슌이는 자긔의 아름다움이 얼마ᄂᆞ 가치(價値)가되는지 스ᄉᆞ로 짐작ᄒᆞ는바이라 그런고로 천가의 지산을물니여 근근히 닉외가 살아가고ᄌᆞᄒᆞᆷ은 결코 심슌이의 소망이아니라 그녀자는 일즉이 마쳔ᄒᆞᆫ몸으로도 귀인(貴人)의 부인된일을 보앗스며 또는 지산가(財産家)로 안히의 츄ᄒᆞᆫ얼골을 실여ᄒᆞ야 도라보지아니ᄒᆞ고 ᄲᅩᆺ과ᄀᆞᆺ치 아름다운 소실(小室)을 구ᄒᆞ야 천일(親昵)ᄒᆞ는모양도 보앗는지라 남자가 지조와 학식만잇스면 임의로 립신(立身)ᄒᆞᆯ과갓하야 녀자는 자식으로능히 부귀(富貴)을 엇으리라 깁히밋엇스며 또는 아름다운 용모로ᄒᆞ야 용이히 부귀를 겸득(兼得)ᄒᆞ는녀자의 약간(若干)을보앗스되 자긔와갓치 아름다운녀ᄌᆞ는 보지못ᄒᆞ얏던 싱각도ᄒᆞᆫ다 그러ᄂᆞ 그녀ᄌᆞ드른 모다 그남편의

게 ᄉᆞ랑을바아셔 아름다운얼골을 ᄉᆞ름마다 칭찬아니ᄒᆞᄂᆞᆫ지업슴을 은근히ᄌᆞ괴와 비교ᄒᆞ엿더라

그외에 ᄯᅩᄒᆞᆫ가지 슌의의 마음을 굿게ᄒᆞᆫ일이 잇스니 이ᄂᆞᆫ 슌의ᄂᆞᆨ나히 십륙셰ᄯᅴ의일이라 그ᄯᅴᄂᆞᆫ 슌의가 셔양ᄉᆞ름이 경영ᄒᆞᄂᆞᆫ 모 녀학교(某女學校)에다닐ᄯᅴ이니 그ᄯᅴ에 엇더ᄒᆞᆫ 셔양ᄉᆞ름이 슌의의 미려(美麗)ᄒᆞᆫ 얼골에 흠모ᄒᆞ야 일일은 그셔양ᄉᆞ름이 슌의의게 염셔(艶書)를 보ᄂᆡ엿ᄂᆞᆫᄃᆡ 그편지ᄂᆞᆫ 결단코 일시에 욕심을 ᄎᆡ우고ᄌᆞ흠이아니라 영원(永遠)히 부々(夫婦)의 언약을 밋고ᄌᆞ흠이라

그후멧칠아니되야 그학교의 교장(校長)이 맛참 상쳐ᄒᆞ고 다시 후취코ᄌᆞᄒᆞ야 ᄉᆞ방으로 젹당ᄒᆞᆫ저목을 구ᄒᆞ더니 일일은 슌의를 쵸용히 방으로불너드리여 간졀히 말ᄒᆞᆫ일이잇셧더라 그ᄯᅴ에 슌의의 어린가슴은 엇진쥴을 아지못ᄒᆞ고 다만 울넝거리며 붓그러운얼골을 감히 들지못ᄒᆞ고 집으로 도망ᄒᆞ듯이 도라왓더니 그후로붓터 ᄌᆞ긔의 아름아움이 ᄉᆞ름에 ᄯᅴ여남을 ᄭᅴ다라 ᄌᆞ긔의 ᄌᆞ격(資格)이 능히 부귀겸젼ᄒᆞᆫ ᄉᆞ름의 안히되기 어렵지아니ᄒᆞᆷ을 밋엇더라 ᄌᆞ긔를 아름다이 보ᄂᆞᆫ ᄉᆞ름은 다만 셔양ᄉᆞ름들ᄲᅮᆫ이아니라 ᄂᆡ외국인을 물론ᄒᆞ고 슌의를 한번보ᄂᆞᆫ ᄉᆞ름이면 흠모아니ᄒᆞᄂᆞᆫ지 업슴은 슌의도 ᄉᆞᄉᆞ로아ᄂᆞᆫ바이라 그후로도 그셔양ᄉᆞ름드른 자로그 부모의게 ᄉᆞ름을보ᄂᆡ여 간청ᄒᆞ되 집안사

세와 습관상으로인ᄒᆞ야 거졀ᄒᆞ얏더니 그러나 슌의ᄂᆞᆫ 혼번가슴에 밧은허영(虛榮)의 마음이 ᄒᆡ로쇽ᄎᆞ 졈졈셩ᄒᆞ야 낫이던지 밤이던지 항상쑴ᄭᅮ ᄂᆞᆫ것은 허영심(虛榮心)이라 지금이라도 귀(貴)ᄒᆞ고 부(富)ᄒᆞ고 명망(名望)잇ᄂᆞᆫ ᄉᆞ름이 ᄂᆞ를맛지려 옥교(玉轎)를 보ᄂᆡ여 다려가고ᄌᆞᄒᆞᄂᆞᆫ 인연이 반다시 도라올쥴을 밋엇더라 그럼으로 슈일이가 슌의를 ᄉᆞ랑ᄒᆞᆷ과갓치 슌의ᄂᆞᆫ 슈일을 ᄉᆞ랑ᄒᆞ야아니ᄒᆞᆷ이 모다 이와갓ᄒᆞᆫ 헛되인싱각을 잇지못ᄒᆞᄂᆞᆫᄭᅡ닭으로 인연ᄒᆞᆷ이라 그러나 결코슈일을 시려ᄒᆞ야 반ᄃᆡ홈은아니오 항상싱각ᄒᆞ기를 슈일과갓ᄒᆞᆫ 졍다운남ᄌᆞ와 평싱을 지ᄂᆡ이면 그 가졍의 질거움이 엇더타 말을슈업스리라 ᄒᆞ여 혼편으로ᄂᆞᆫ 허영(虛榮)의 악마(惡魔)를 싱각ᄒᆞ면셔도 수일의위인을 ᄉᆞ랑ᄒᆞ기를 마지아니ᄒᆞ며 슈일의 마음에ᄂᆞᆫ 져슌의ᄂᆞᆫ 나를ᄉᆞ랑ᄒᆞᄂᆞᆫ외에ᄂᆞᆫ 그가슴속에 다른물건은 한아도 업ᄂᆞᆫ줄노 싱각ᄒᆞ엿더라

제오쟝 深夜述懷 (깁흔밤에회포를말ᄒᆞᆫ다)

침침ᄒᆞᆫ칠야에 리슈일의 공부ᄒᆞᄂᆞᆫ방에ᄂᆞᆫ 칙상우에잇ᄂᆞᆫ 면각종(眠覺鍾)이 밤열시를 가르친다 슈일이ᄂᆞᆫ 학교에셔파ᄒᆞ야 도라온후 오후 ᄉᆞ오시줌이나ᄒᆞ야 하교에 함ᄭᅴ다니ᄂᆞᆫ 동료(同僚)와 한가지로 ᄂᆞ아간후 지금ᄭᅡ지 도라오지아니ᄒᆞ얏더라

심틱은 원ᄂᆡ 불교를 신앙ᄒᆞᄂᆞᆫᄉᆞ름이라 이ᄂᆞᆯ도 아츰일즉붓터 심틱(沈澤)의부

부는 시히에 복을빌고ᄌᆞᄒᆞ야 엇더ᄒᆞᆫ졀로 ᄂᆞ아가셔 불공(佛供)을ᄒᆞ노라 도라오지아니ᄒᆞ고 집에는 리슈일과 슌이로ᄒᆞ야곰 집을직히게ᄒᆞ엿는ᄃᆡ 수일은 쳔구의게 쇼을녀ᄂᆞ아가고 문간힝낭에는 스나희ᄒᆞ인ᄒᆞᆫ아이 호을노잇셔 울고짜징부리는 어린아희를 달ᄂᆡ이며 져의계집이 졀에싸라가셔 ᄂᆞᆺ도록아니옴을 쥼얼거리며 욕ᄒᆞᆫ다

휘휘ᄒᆞᆫ 너른방안에 남포의불을도도고 젹젹히 안져잇는 슌이는 염혜다가 화로를노코 그화로안에는 ᄊᆡ기그릇과 물그릇을 올녀노왓는ᄃᆡ 그ᄊᆡ기와 슝융이식을가염녀ᄒᆞ야 숫이사글만ᄒᆞ면 섬섬ᄒᆞᆫ옥수로 다시숫을집어너흐며 먹을스름도라오기를 고ᄃᆡᄒᆞᆫ다

슌이는 등잔압헤 갓가히안자 겨을ᄂᆡ 바날을움자기고 잇스며 ᄯᅥᆨᄯᅥᆨ로 문스간에셔 신발소ᄅᆡᄂᆞᆫ가 귀를기우려듯더니 홀연 쌈작놀ᄂᆡ인듯이 반지고리속에잇던셩냥을 집어가지고 일어스며

「아이고머니 쌈박 이져바렷네 자리도아니 ᄉᆞ라노코 화로에불도 아니히노앗지

혼자말ᄒᆞ고 문을열고ᄂᆞ아가 ᄯᅳᆯ아ᄅᆡ로ᄂᆞ려스더니 ᄃᆡ청마진짝으로 간반이ᄂᆞ되ᄂᆞᆫ방 ᄒᆞᆫ아이잇ᄂᆞᆫᄃᆡ 그방문을열고 셩냥을 득그어 남포의불을켜며 다시화로에불을 피여놋ᄂᆞᆫ다

이방은 리슈일이가 거쳐ᄒᆞᄂᆞᆫ방이라

아ᄎᆞᆷ이후로 사ᄅᆞᆷ의긔운이 ᄉᆞᆫ어졋던방이라 살을어이ᄂᆞᆫ듯ᄒᆞᆫ 찬긔운은 지금에ᄒᆞᆯ연 스ᄅᆞᆷ의 ᄲᅡᆨᄃᆞᆺᄒᆞᆫ살을 엇음을 질긔여 밍호ᄀᆞᆺ치 몰아와셔 물교ᄯᅳᆺᄂᆞᆫ것갓치몸에 핍박(逼迫)ᄒᆞᆫ다 슌이는 급히화로에 피여올으ᄂᆞᆫ불을 두손으로 쏘이며고ᄀᆡ를돌니여 칙상우에 시계(時計)를바라본다

밤은깁고 교요ᄒᆞᆫᄃᆡ 등잔(燈盞)빗은 호을노 아름다운얼골을 빗초여 더욱한업시 아름답다

불치불검(不侈不儉)ᄒᆞ게 입은옷과 약간단장ᄒᆞᆫ얼골은 이슬을먹음은 히당화(海棠花)ᄒᆞᆫ가지가 원식(月色)에빗추임과갓ᄒᆞ야 등뒤으로 벽에빗초이ᄂᆞᆫ 그림자ᄉᆞ져 향긔(香氣)가ᄃᆞᆺᄂᆞᆫᄃᆞᆺᄒᆞ다

슌이ᄂᆞᆫ 젼일금강셕광치에 현황ᄒᆞ던눈으로 지금은 교요히 시침(時針)도라가ᄂᆞ라고 지각지각ᄒᆞᄂᆞᆫ소ᄅᆡ를 묵묵히듯고잇다 그러ᄂᆞ 면주져고리 옵자락 속쟈락두겹으로 싸이여잇ᄂᆞᆫ 그녀ᄌᆞ의가슴을 싱각ᄒᆞᆯ지라도 그가슴속에ᄂᆞᆫ 지금무엇을 싱각ᄒᆞᄂᆞᆫ가 ᄇᆞᆯ지니 그녀ᄌᆞᄂᆞᆫ 가쟝스랑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도라오기를 기다릴ᄲᅮᆫ이로다

방안에 찬긔운이 죠곰감ᄒᆞᆷ의 슌이ᄂᆞᆫ 다시일어셔셔 이불을ᄂᆡ여 아ᄅᆡ人목에싸라놋코 그이불우에 올나안자 머리맛으로잇ᄂᆞᆫ 칙상우에 수일이가보ᄂᆞᆫ칙을

두젹거리며 그림도보며 글도보며 홀노웃는다 지금순이가 쌀고잇는 금구(金具)는 순이가 졍녁을드리여 아못죠록 춥지말느고 츅원ᄒᆞ야가며 지은이부자리라

그부모는 스찰로 불공 갓슴으로 그날 도라ㅣ오지아니 홀줄을알고 슌이는 다시기다리지도 아니ᄒᆞᆫ다

홀연 먼곳으로붓터 ᄯᅳᆯᄯᅳᆯ거리는 인력거(人力車)소릐는 점점갓가이 오더니 ᄌᆞ긔집문문간에 일르러 ᄯᅮᆨ긋친다 순이는 슈일이가 타고옴인가ᄒᆞ야 문을열고 ᄂᆞ올여홀ᄯᅢ에 그린역거타고온스름은 취ᄒᆞᆫ목소릐로 빗틀거리는 거름으로 무엇이라 짓거린다

원릐에 리슈일이는 슐도먹지못ᄒᆞ거니와 죠곰이라도 슐긔운이잇셔가지고 집에도라온일이 업셧는고로 슌이는 이웃집에오는 사름인가ᄒᆞ고 다시근력업시 털셕쥬져안즈며 시계를 바라보니 열한시가 거의되엿더라

죠곰잇더니 ᄃᆡ문을두다리며 문을열느ᄒᆞ더니 힝낭으로셔 스ᄂᆞ희ᄒᆞ인이 ᄂᆞ와 문을여는ᄃᆡ 취ᄒᆞᆫ스름의 거름소릐가 문간에셔 요란ᄒᆞ며 ᄒᆞ인은 취ᄒᆞᆫ사름을 붓드러 드리는모양이라 슌이는 엇진일인지 아지못ᄒᆞ야 황망이 남포를들고 밧그로ᄂᆞ아와 문스간을향ᄒᆞ야 바라보니 거름은능히 발을간우지못ᄒᆞ고 동셔로빗틀거리며 머리에쓴 모ᄌᆞ는 ᄒᆞᆫ편모으로붓터셔 조곰ᄒᆞ면 ᄯᅡ에떠러질듯ᄒᆞᆫ

ᄃᆡ 힝낭ᄒᆞ인의게 몸을실니여 드러오는것은 리슈일(李守一)이라 얼골은 ᄃᆡ초빗갓치되얏는ᄃᆡ ᄒᆞᆫ손에는 슈건으로싼것을 ᄒᆞᆫ아들고 입이조ᄒᆞ여 헛침을 ᄇᆡ앗흐며

「어ㅣ참ᄂᆞ졋다 등불가지고 ᄂᆞ오는사름은 누구야 아이 고마워라

ᄒᆞ인은 취ᄒᆞᆫ사름이 실니는몸을 능히이긔지못ᄒᆞ야 ᄃᆡ스돌우 마로읍 셤돌우에 일르러셔는 취ᄒᆞᆫ사름과흠씌 ᄒᆞ인도쓰러진다

「여봅시오 아씨 이셔방님좀 방으로 뫼셔드립시오 닷치시겟슴니다

슌이는 손에들엇든 남포을 퇴스마로에 ᄂᆞ려노코 먼져방으로들어가셔 퇴스마로에 걸어안진 슈일의 겻흘두손으로 잡아일으키며

「여보이러ᄂᆞ오 오늘은 이게웬일이오

슈일은 다시졍신이 ᄂᆞᄂᆞᆫ듯이 눈을번쩍ᄯᅳ며

「응 이게ᄂᆡ방인가 오날은 참취힛셔

ᄒᆞ며 다시그자리에 드러눕는다 슌이는 민망홈을 익이지못ᄒᆞ야

「아이 이게웬일이오 뭔 흑바닥에가셔 드러눗는단말이오 어셔일어ᄂᆞ요

「여보 구두를신어셔 방에를 엇지들어갈슈잇소 아ㅣ취히

문지방은 벼ᄀᆡ로삼고 퇴스마로ᄭᅳ헤 비스듬이누어셔 발은셤돌우에 올녀노앗ᄂᆞᆫᄃᆡ 슌이는 얼핏퇴스마로로 ᄂᆞ아와셔 발바당으로 셤돌ᄃᆡ잇고 슈일의 구두를

벗기여준다
잇띄 ᄒᆞ인은 어련아히 우는소릭를듯고 밧그로 ᄂᆞ아갓다
「여보 인제 구두도 벗겻스니 일어나 방으로들어가시오
「응 ᄂᆡ 일어눌테야 일어나기는 일어나겟지마은 누가ᄂᆡ손을 좀 붓드러주어야 방으로들어가지 나혼ᄌᆞ는 거를슈업셔
슌ᄋᆡ는 헐일업시 슈일의 손목을 잇글ᄆᆡ 슈일은 썰니여 일어ᄂᆞ셔 빗슬거리며 혼줌만혼 억ᄀᆡ에 ᄆᆡ여달니니 슌일는 연약혼힘으로 간신히 취혼ᄉᆞ름을 붓들어드리엿다
슈일은 싸라노은 이불우에 함부로 주져안자 몸은 칙상머리에 의디ᄒᆞ고 반줌은누어 청아혼목소릭로 고시(古詩)일수를 읍는다
「燈耿々 漏遲々 寒風撼帷夕 飛雪撲欄時 卿莫愁只今寂寞 我心唯有我心知
「여보 젼에는 평싱술먹는것을 보지못ᄒᆞ겟더니 오늘은어데셔 그럿케 잡셧소
「ᄃᆡ단이 취ᄒᆞ얏지 응여보 순ᄋᆡ씨 졍말오늘은 술이단단이 취ᄒᆞ얏셔 오늘은 다힝이 장인장모가 다아니게시니ᄭᅡ 아쥬홀융힛네
「취ᄒᆞ고말고 여부가잇소 그다지 취ᄒᆞ도록 잡술것이 무엇이오 아마속이괴란ᄒᆞ시지오

「괴란ᄒᆞ고말고 가슴이 울넝거리여셔 제일못견ᄃᆡ겟소 ᄂᆡ가본ᄃᆡ 술을먹을쥴아는ᄉᆞ름이 못되는ᄃᆡ 이럿케 취ᄒᆞ도록먹은것은 다 ᄭᅳᄃᆡ이 잇다네 그ᄭᅳᄃᆡ을 말홀것ᄀᆞᆺ흐면 슌ᄋᆡ씨도 ᄂᆞ다려 술먹엇다고 ᄂᆞ무라지못ᄒᆞ고 도리여 술취혼ᄂᆞ를 잘ㅣ구원ᄒᆡ쥬어야 올을셀
「ᄂᆞᄂᆞᆫ 그럿케 술먹는ᄉᆞ름시려요 젼에는 술이라면 아조ᄃᆡ리를ᄒᆞ시더니 오늘은 이다지 잡수셧단말이오 누가그럿케 권합ᄃᆡ ᄉᆞ가 ᄇᆡ락관(白樂觀)씨도 흠씨가셧슬터인ᄃᆡ 엇지ᄒᆡ셔 이럿케 취ᄒᆞ도록 말니지아니ᄒᆞ고 두엇슬가 잠간단여오마고 가시더니 열혼시가 되도록 아니오신단말이오 나는 혼ᄌᆞ엇지 기다렷는지모로는ᄃᆡ……
「졍말기다리고 잇셧소 ᄂᆞ를기다리고 아이고 고마워ㅣ졍말나를 기다렷스면 ᄂᆞ는지금 이쟈리에셔 죽드릭도 한이업겟소 ᄂᆡ가오늘이럿케 취ᄒᆞ고온것도 다우리두ᄉᆞᄅᆞᆷ의 일노인년ᄒᆡ셔 ᄂᆞᆫ일이라오
ᄒᆞ며 수일은 슌ᄋᆡ의 옥수(玉手)를 붓들고 졍(情)에 익이지못ᄒᆞ야 한참동안을 ᄲᅡᆨㅣ쥐인다
「우리학교에 나와혼년급에잇는 친구들은 우리가 졸업혼후에는 셩례혼다는 말을 어ᄃᆡ셔들엇는지 여러ᄉᆞᄅᆞᆷ이 모다알고는 츅하(祝賀)를 혼다고ᄉᆞ면팔방으로 축ᄇᆡ(祝盃)가 들어오는ᄃᆡ 츅ᄇᆡ라ᄒᆞᄂᆞᆫ것을 아니바다먹을수가업셔

셔 쥬는듸로 밧아먹엇더니 이모양이 되엿소구료
슌익는 그윽이 우음을씌우고 잠착ᄒᆞ야 수일의 ᄒᆞ는말을 듯고잇다
「그리ᄒᆞ고 더우수운말이 또 ᄒᆞᆫ아잇지 너는 팔조와 복이 엇더케조흐면 ᄭᅩᆺ갓흔 미인(美人)을 다리고 평싱을질기게 된단말인가 아못조록 그리로쟝가가거든 원만ᄒᆞᆫ가졍을 만다라 젼일의 구습(舊習)은 닉여바리고 학식(學識)잇는 부부가 모엿스니 신식가졍(新式家庭)으로 화락(和樂)ᄒᆞ게 지닉기를 축수ᄒᆞ네ㅣᄒᆞ고 만셰를부르며 또술을권ᄒᆞ는구료 여러ᄉᆞ람들은 시럽슨 작란겸히셔 ᄒᆞ는말인줄은 모로는것이 아니지만은 ᄒᆞ는말들이 모다 그러ᄒᆞᆯ듯ᄒᆞ야셔 ᄉᆞ양치아니ᄒᆞ고 밧아먹엇지……여보슌익씨 아못조록이러헌 못는놈이라도 멀니바리지 마시기를바라오
「아이고 망칙도ᄒᆞ여라 별안간에 그것은 무신소리오
「인졔는 친구들도 모다알아 노앗스니 우리가 아못조록 부부가되여셔 살아야지 만일그럿치못ᄒᆞ는날에는 나는아조 ᄉᆞ름갑세 가지를못ᄒᆞᆯ 모양이오
슌익는 붓그리는얼골을 엽흐로돌니며
「웨 이리히요 벌셔다 졍ᄒᆞ여 노은일을 지금다시 그런소릭는웨……
「아니오 그럿치안소 요ᄉᆞ이 쟝인장모의 긔식을 감안이보니ᄭᅡ 암만ᄒᆞ야도 나는밋업지못……

「그럴리가잇소 그것은 게셔 조격지심이지」
「실상말ᄒᆞ면 장인장모의마음은 엇더ᄒᆞ게가지고 게시든지 당조되는 슌익씨의 마음ᄒᆞᆫ아가지기에 달닌일이지
「닉 마음은 발셔 졍ᄒᆞ얏는듸 다시졍ᄒᆞᆯ것이 또 잇셔야지오」
「응 그러ᄒᆞ면은 고마운일이지만은 확실히 그러ᄒᆞᆯ가」
슌일이는 취ᄒᆞᆫ을 익이지못ᄒᆞ야 슌익의 무릅을버히고 쓰러진다 슌익는 불갓치ᄯᅳ거운이마를 손으로집허쥬며
「여보」져녁좀 잡숫지아니ᄒᆞ시려오 속이갑々ᄒᆞ거든 숭융잡수시오……아이 잠드럿나베ㅣ 여보시오 여보
련익(戀愛)라ᄒᆞ는것은 신셩(神聖)ᄒᆞᆫ물건이라 이ᄯᅢ에 슌익의 가슴가온듸에는 젼과갓치 비루(卑陋)ᄒᆞᆫ 희망(希望)은 자최도 업셔졋스며 그 어엽분 눈에는 다른물건은 보이는것이업고 다만 리슈일의 자는얼골에향ᄒᆞ야 부(富)와 귀(貴)와 닉지(乃至)리욕(利慾)의 만음은 그무릅에 쉬닷는 ᄯᅡ듯ᄒᆞᆫ괴운에 녹아업셔지고 황홀(恍惚)히 ᄭᅮᆷ결갓ᄒᆞ야 취ᄒᆞᆫ듯 쉬는듯 안쟈잇다
그녀즈의 졔반 망상(妄想)은 봄ᄒᆡ에 눈녹듯업셔지고 ᄒᆞᆫ집안 ᄒᆞᆫ방안에 다만 두ᄉᆞ름이 이셰상에 호올노 광명(光明)을 엇음갓다

졔오쟝 煩悶 (번민)

엇더ᄒᆞᆫ놀 심틱(沈澤)의집에는 다동(茶洞)사는 김소ᄉᆞ(金召史) 가이르럿더라 김소ᄉᆞ와 심틱의 부인은 시누의와 오라버니ᄃᆡᆨ이 되는터이니 쇽담(俗談)에일은바 올케기리라 친쳑으로는 비록갓가우나 고릭로 풍속이 사돈간에는 부인등은 셔로 ᄌᆞ조심방ᄒᆞᆷ을 조와녁이지 아니ᄒᆞᄂᆞᆫ터이오 ᄎᆞ라리 안으로는 왕릭(往來)가 ᄭᅳᆫ이엿다ᄒᆞ여도 가ᄒᆞᆯ네라 그러ᄂᆞ 이놀은 의외에 김소ᄉᆞ가 그시누이되는 심틱의부인을 ᄎᆞᄌᆞ왓스니 셔로반가이만나 담화ᄂᆞᆫᄒᆞ엿스나 심틱의 부인 최씨(崔氏)는 그 오라버니ᄃᆡᆨ이 졸지에 ᄎᆞᄌᆞ온일을 고이히녁이며 ᄯᅩᄒᆞᆫ 무삼일이잇ᄂᆞᆫ가 ᄒᆞ엿더라

김소ᄉᆞᄂᆞᆫ 아ᄎᆞᆷ일즉이와셔 셕양ᄭᆡ ᄭᅡ지잇ᄂᆞᆫᄃᆡ 이집은 ᄉᆞ랑이업고 다만 리슈일(李守一)의 거쳐ᄒᆞᄂᆞᆫ ᄯᆞᆯ아ᄅᆡᄉᆞ방ᄒᆞᆫ아이 잇슬ᄲᅮᆫ이니 이놀심틱은 안ᄉᆞ손님에게 안방은ᄲᅦ앗기고 죵일토록 호을노 ᄯᆞᆯ알ᄋᆡ방안에 갓치엿ᄂᆞᆫᄃᆡ 그 김소ᄉᆞᄂᆞᆫ 모로ᄂᆞᆫ것도 아니연만은 도모지 불안ᄒᆞᆫ마음이업시 오ᄅᆡ도록잇스며 무삼말을 ᄋᆡ론 ᄒᆞᆯ듯ᄉᆞᄉᆞᄒᆞ나 슌ᄋᆡ가 엽헤잇슴을 ᄉᆞ리여 조용ᄒᆞᆫ틈을 기다리ᄂᆞᆫ모양이러니 졈졈 놀이늣져가ᄆᆡ ᄒᆞᆯ일업시 김소ᄉᆞᄂᆞᆫ 엽헤안져잇ᄂᆞᆫ 슌ᄋᆡ를도라보며 「이ᄋᆡ 너는 건넌방으로 좀 건너가셔잇거라 너의어머니ᄒᆞ고만 조용이ᄒᆞᆯ말 잇스니」슌ᄋᆡᄂᆞᆫ ᄃᆡ답ᄒᆞ고 일어나셔 나아가며 ᄉᆡᆼ각ᄒᆞᆫ다 무삼은근ᄒᆞᆫ 말이잇셔々 어머니에게 ᄒᆞᄂᆞᆫ말을 ᄌᆞ식되ᄂᆞᆫ 나를피ᄒᆞᄂᆞᆫ고 필연수샹ᄒᆞᆫ곡졀이 잇슴이니 그여

히 그말을ᄂᆡ가 엿드르리라ᄒᆞ야 건넌방으로 들어가ᄂᆞᆫ체ᄒᆞ고 다시건너와 안ᄉᆞ방지게문뒤에 숨어셔々 방안에셔 조용々々이 ᄒᆞᄂᆞᆫ말을 이윽이듯고잇다 방안에셔 ᄒᆞᄂᆞᆫ말을 참졉이듯고셧든 슌ᄋᆡᄂᆞᆫ ᄒᆞᆯ련얼골이 호을로 벌ᄀᆡ진다

이놀 리슈일(李守一)은 학교에가고 집에잇지 아니ᄒᆞ얏ᄂᆞᆫ고로 이와갓치 괴샹ᄒᆞᆫ안ᄉᆞ손님이와셔 다녀간줄을 젼혀아지못ᄒᆞ엿스며 집안ᄉᆞᄅᆞᆷ들도 김소ᄉᆞ의왓던일을 속이고 말ᄒᆞ지아니ᄒᆞ엿더라

이놀이후로 하로지ᄂᆡ고 잇흘지ᄂᆡ야 놀이졈々 지나가ᄆᆡ 슌ᄋᆡᄂᆞᆫ 졈졈먹기를 젹게ᄒᆞ고 밤에 잠을 일오지못ᄒᆞ고 젼々ᄒᆞᆫ다 그러나 리수일은 젼혀아지못ᄒᆞ고잇다 슌ᄋᆡᄂᆞᆫ 놀이 졈々ᄂᆡ여갈ᄉᆞ록 그가슴속에 잇ᄂᆞᆫ말을 슈일에게 고ᄒᆞ고ᄌᆞᄒᆞ지 아니ᄒᆞᆫ다 그러ᄂᆞ 그ᄉᆞ이에 심틱의부부ᄂᆞᆫ 항상죠용이안지면 그일을의론ᄒᆞ노라고 슈군々々ᄒᆞᆫ다 그러나 심히 ᄂᆞᆫ쳐ᄒᆞ야 결단키어려워ᄒᆞᆫ다

져와갓치 은근ᄒᆞᆫ가온ᄃᆡ에셔 이르ᄂᆞᆫ일을 리슈일은 신령(神靈)이 아니라 엇지알니오 그러나 편시(片時)라도 잇지못ᄒᆞᆯ슌ᄋᆡ의 얼골이 평일과다름은 분명이알앗ᄂᆞᆫ지라 항상마음으로 그녀ᄌᆞ에 건강(健康)을 축원ᄒᆞ며 진심을다ᄒᆞ야 ᄉᆞ랑ᄒᆞᄂᆞᆫ 그녀ᄌᆞ에 얼골이 요ᄉᆞ이로 ᄒᆞᆯ련연고업시 혈식이것치고 동작(動作)싸지도 심히무력(無力)ᄒᆞ야보이며 웃ᄂᆞᆫ형용도 가장강잉ᄒᆞᄂᆞᆫ 모양이라

그집건넌방은 슌ᄋᆡ가 호을노 거쳐ᄒᆞᄂᆞᆫ방이라고 일으기ᄂᆞᆫ 어려우나 슌ᄋᆡ의놀